

보문종 종정 해안 스님 입적... 5일 영결식

10월 1일 열반한 보문종 제4대 종정 해안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10월 5일 서울 보문사와 남양주 봉선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은 법주사 회주 해정 스님, 원웅종 종정 일공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계민도회장 광우 스님, 보문종 원로위원장 해일 스님, 운문사 주지 흥륜 스님, 동산불교대 김재일 이사장, 서찬교 성북구청장 등을 비롯해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보문종 총무원장 법종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보문종을 한국불교계의



10월5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거행된 보문종 종정 해안 스님 다비식.

큰 기쁨으로 일으켜 세우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49세 법회는 11월 18일 보문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봉선사로 이운돼 곧바로 다비식

이 봉행됐다. 49세 법회는 11월 18일 보문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봉선사로 이운돼 곧바로 다비식

강유신·김강진 기자

후보 누구냐? 최대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계파별 후보군 압축·청정선거 목소리 높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에서는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했으나 야권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제가 단체들은 총무원장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범여권, 10일 후보발표
범여권 중심으로 구성된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추대 상임위원회'는 10월 5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후보가 지관(원로의원·가산불교문화회 회장) 설정(前 종회위원장·수석사수좌) 도영(포교위원장) 스님 3명으로 압축됐다"며 "10월 10일 오후 5시 후보자 1명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또 상임위원회 상

임위원장에 지성(동화사 주지, 부위원장) 장윤(중앙종회의원)·자승(중앙종회의원, 간사에 장적(중앙종회의원)·철안(봉선사 주지)·종삼(화엄사 주지)·광욱(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스님을 선출했다.

범야권, 후보토론회 계획

그러나 야권 중심의 10개 교구본사 주지사님들은 6일 유성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정 정파에서 주도하는 추대위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세물이에 불과하며 범종단 추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해사, 금산사, 선운사(대리), 월정사, 쌍계사, 대흥사, 마곡사, 고운사, 범어사, 관음사(대리) 주지사님은 이날 채택된 합의문을 통해 "종단 선거일이 공고되고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추대위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구본사 스님들은 또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에 합의했다.

'청정선거실현 승가' 창립

이런 가운데 출제가 단체들은 후보자 합동 정책토론회를 공동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교구본사 주지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청정선거' 서명도 받을 예정이어서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님들로 구성된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상인대표 수완)는 7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창립발표를 봉행하고 감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29개 불교계 단체로 구성된 '청정선거문화장학 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의정 등)도 5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화합승가포럼, 12일 세미나

최근 발족한 화합승가포럼도 12일 오후 2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인물론과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 또 제24차 원로회의(의장 종산)도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한 담화문 발표의 건 등의 안건으로 10월 12일 오후 1시 청주 보살사에서 열린다. 한편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 총회가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남동우·유철주 기자

기획연재 - 조계종 총무원장 어떤 자리?

문중세에서 종회 계파 힘으로

1. 위상과 권한
2. 어떻게 선출하나
3. 인물로 본 총무원장 상
4. 인물로 본 총무원장 하

사실상 '추대' 방식 94년 이후 '선거' 심화

과열 '종단사태' 원인... '청정선거' 염원

1962년 제정된 조계종 최초 종회에서 총무원장은 종단의 대표권자인 종정을 보좌하는 위치였다. 이른바 권력구조상 '종정중심제'였던 이때 총무원장은 종회가 선출해 종정이 임명했다. 당시 총무원장 선출은 종회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추대의 형식이었던 만큼 갈등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66년 초대종정 효봉 스님 입적 이후 종정 추대과정에서 종권을 둘러싸고 문중별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2대 종정 청담 스님과 총무원장 경산 스님과의 불화가 대표적이다. 이 일로 종정 총무원장 등 종단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73년 서운 스님이 종정에 취임하면서 총무원장을 임명제로 바꿀 때까지 종권을 둘러싼 종단분규는 계속됐다.

총무원장을 다시 종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10·27 법안 이후 들어선 정화종회의 때부터다. 종회의는 81년 1월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회를 개정했다.

84년 해인사 승려대회에서는 녹색 스님을 24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이후 86년까지 총무원장을 종회에서 선출했지만, 사실상 추대하는 형식이었다.

총무원장을 선출을 위해 종회 내에서 경선이 이뤄지기는 90년 의연 스님과 월담 스님이 맞붙은 26대 총무원장 선거 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총무원장을 뽑는 본사 주지와 교구본사 의원이 총무원장의 영향권하에 있어 선거는 형식에 불과했다.

이는 현직이었던 의연 스님 외에는 다른 경쟁자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였다. 94년 3월 의연 스님이 총무원장 3선에 나서면서 오후 1시 청주 보살사에서 열린다. 한편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 총회가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남동우·유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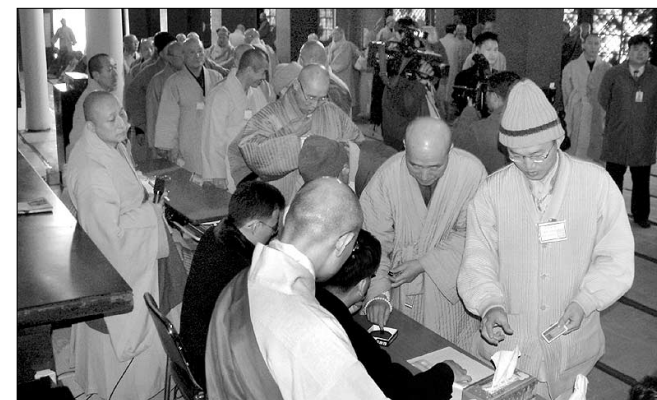
회의원을 포함한 교구당 각 10명씩 선거인단을 두도록 하는 현행 선거인단 제도로 바꿨다.

처음에는 총무원장 직선제가 거론됐지만 보수파들의 공세에 밀려 현재의 간선제 형식으로 절충됐다. 하지만 선거가 가열되면서 금권선거로 변질되고, 법적이 한참 높은 스님이 제자될 되는 선거인 스님에게 한 표를 애걸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여론이 비등하다.

94년 이후 선거구도도 변화했다. 기존의 문중개념보다는 종회

총무원장 후보자는 선거일전 10일부터 3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연 후보자 자격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제 2급 이상의 비구로 사설사업을 종단에 재산등록하지 않았거나, 면직으로 해임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종법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후보자의 등록을 받은 후 신상명세, 종적을 불교계신분에 1회 게재해야 한다.



2003년 조계사에서 진행된 제 31대 총무원장 선거.

내 계파와 개인적 성향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방법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법 제13조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각 교구에서 10명씩 선출된 240명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뽑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종회 제52조 제53조, 종법의 총무원장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조계종 종회 종법에 따르면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후 1달이다. 선거공고 4~5일 후 곧바로 교구총회 공동소집 공고를 하고, 15일안에 교구본사별로 각 10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본격적인 총무원장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 10일이다. 선거 기간중의 선거운동 금기사항은 비승가적 행위(금품 수수 및 물품 제공,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행위 등)와 각종 집회의 개최, 기부의 권유 및 요구행위, 선거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선거공고 후 30일이 되는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에 들어간다. 후보자가 한 명이면 무투표로, 2명이 상이 출마하면 첫 번째 투표결과 재적 과반수 득표자의 당선이 확정된다. 해당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간에 재투표한다. 재투표에서도 재적 과반

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스님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승랍,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선출된 총무원장은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총무원장 임기(4년)는 전임 총무원장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하나, 임기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결의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시작된다.

역대 총무원장선거와 종단사태

1980년대 종권을 두고 총무원장과 중앙종회가 힘겨루기를 벌일 때다. 종회가 열릴 때마다 총무원장을 흔들었고, 또한 종회의장이 바뀌었다. 1981년 1월 제18대 총무원장에 성수 스님이 취임한 후 84년까지 3년간 초우 법전 진경 서운 석주 녹원 스님 등 무려 7명이 총무원장직에 올랐다.

이처럼 총무원장은 아무나 할 수도 없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선출 이전부터 잠재된 불씨는 선출과정에서 불이 붙거나 총무원장 취임 후에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주·고산 스님이다.

1994년에 치러진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월주 스님이 선출됐다. 월주 스님은 1980년 17대 총무원장에 선출됐지만 10·27 법안으로 인해 6개월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98년에 월주 스님이 다시 총무원장 출마선언을 하자 이것이 '3선인가 아닌가'를 두고 시비가 일었다. 결국 종단 사태가 발생했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곧이어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고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99년 10월 사법부는 '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총무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결국 고산 스님은 1년여 만에 중도 사퇴했고, 99년 11월 정대 스님이 제30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동국대 이사 결직 건이 불거지면서 중도 사퇴하고, 2003년 제 31대 총무원장에 법장 스님이 당선됐다. 김원우·남동우 기자

'제32대 총무원장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 제 : '제32대 총무원장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 일 시 : 불기2549년 10월12일(수요일)오후 2시~4시
- 장 소 : 조계사 설법전

화합 승가 포럼 설립 취지문

불조의 해명이 이 땅에 이어진지 어언 1700여년이 되었다. 수많은 좌절과 난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 사회의 목탁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선배스님들이 있었기에 한국불교와 종단은 그 도도한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가까이는 민족불교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맞섰던 선배스님들이 그러하며, 해방 후 정화운동, 1980년대 민주화운동, 1990년대 종단개혁을 이끌었던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자랑이며 보배다. 특히 현재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선배스님들은 지난 10여 년간 승려교육체계 정비, 전국대적 중무행정의 현대화, 과학화, 재무구조의 건전화, 예·결산의 체계화 등 수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 중에서도 대정부 자주화는 한국불교와 스님들이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틀을 마련한 찬란한 성과였다.

그러나 성과 못지않게 과 또한 적지 않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계파에 의한 폐해다. '계파'의 폐해는 종단의 인사 재정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우리는 계파의 스님들이 계파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기를 앙망하고 있다. 계파 모임은 처음에는 종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생산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 문중과 몇몇 중진 스님들이 좌지우지하던 폐해를 극복하고 정체가 중심이 되는 건전 종단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계파는 계파 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됐다. 지금 우리

종단의 선거 역사 계파간의 합종연횡으로 선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계파의 스님들이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하고 계파의 분열로 인한 종단의 상처를 기꺼이 치유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 정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세속의 논리가 비집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은 화합, 자비, 관용인 반면 세속의 법은 분열, 보복, 배척이다. 이것은 결국 수행자적 삶의 태도와 사고를 지니고 있는 가 아닌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내편과 내편을 나누어 반목하고 질시하며 반대편을 억누르는 행동조차 마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을 옹호하고 약자를 업신여기며, 크고 화려한 것만 좇는 물질주의를 숭배하고 발전과 진보만을 선으로 여기는 승단의 풍조는 이제 수행자의 가치와 사고로 전환 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한국불교와 승단이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잘못이다. 우리를 또한 문제점은 진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 그 사이 종단은 병으로 신음하고 중생들을 향해서는 희망을 건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방일과 침묵을 떨치고 올바른 수행풍토 조성과 시대가 승단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일어나고자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

- 첫째, 수행정신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 둘째, 도반들과 함께 토의하고 공부할 것이다.
- 셋째, 계파의 폐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종단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넷째, 종단의 울골은 새 지도자를 위한 여론의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 다섯째, 우리는 정견에 입각한 올바른 구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화 합 승 가 포 럼